

학원법 개정에 유통가 문화센터 문 닫는다

18세 미만 미술·음악 등 학원에서만 교육 가능 광주신세계 75개 강좌 폐지 “매출 악영향 우려” 롯데백·홈플러스·이마트 등도 폐쇄 잇따를듯

주부 이모(39·광주 서구 화정동)씨는 일곱 살 배기 아들이 다니던 광주지역 한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교육 근절 차원에서 학원법이 바뀌어 36개월에서 18세 미만은 학원에서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백화점 등이 이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최근 광주지역에서 처음으로 학원법에 따라 36개월~18세 미만 대상 강좌를 폐지하는 등 이 지역 유통가의 36개월~18세 미만 문화 강좌가 잇따라 문을 닫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

상된다. 이에 학부모들은 “되레 사교육비만 늘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과 지역 백화점 등에 따르면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만 3세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반드시 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는 대부분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교습이 금지돼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신세계백화점이 관련 강좌를 폐지했다.

지난 2011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법률’(이하 학원법)의 개정으로 유아

나 학생은 ‘학교 교과 교습학원’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교습이 가능하고, 평생교육시설에서는 이들을 위한 강좌를 할 수 없다.

이에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미술강좌, 바이올린, 스피치, 바둑, 체스 등 유아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75강좌를 폐지했다. 이 때문에 1080여명이 관련 강좌를 들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이들 강좌가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진행돼 학부모들의 반발이 크고, 일부 광주지역 대형 유통시설 문화센터에서는 여전히 관련 강좌가 개설돼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백화점 등이 개설한 유아, 청소년 강좌는 대부분 3개월 강의 기준 6만~10만원 수준으로 일반 학원에 비해 많게는 70%가량 저렴해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학부모들은 영어와 논술 등 고액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개정된 학원법이지만 정작 저

렴하게 운영되던 백화점 강좌만 사라졌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또 최근 광주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관할 백화점 등에 “해당 강좌 진행시 행정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개정 학원법 적용에 단호한 입장이지만 다른 지역의 문화센터 등에서는 여전히 관련 강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 학원법 개정 이후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올 3월 첫 시행이다 보니 혼선을 빚고 있는 셈이다.

한편 광주지역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련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광주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롯데문화센터 상무점·수원점·첨단지점, 홈플러스 문화센터 동광주점·하남점, 이마트 문화센터 상무점·광산점 등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82.70 (+1.58)	↓ 금리 (국고채 3년) 1.34% (-0.02)
↓ 코스닥 688.55 (-0.40)	↓ 환율 (USD) 1156.60원 (-4.20)

초저금리에... 돈 몰리는 주식시장

고객예탁금 26조 사상 최대...활동계좌수 연일 최고 경신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인화된 가운데 주식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고객예탁금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초저금리 상황을 맞아 시중 유동성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21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고객예탁금 전액은 26조1809억원으로 전일보다 1조9626억원이나 늘어났다. 이로써 작년 7월20일의 종전 사상 최대치(24조7030억) 기록을 무려 1조5000억원가량 뛰어넘었다.

고객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놓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돈으로, 언제든지 증시에 투입될 수 있는 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초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갈수록 시중 부동자금이 투자형 자산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공모주 청약에 수조원의 자금이 몰리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주식거래활동계좌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식거래활동계좌수는 지난 17일 현재 2247만3849개에 달했는데, 이는 올해 들어서만 100만개 넘게 증가한 것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무역수지 5월도 불황형 흑자

1년전보다 79% 늘어...수출 7.6%·수입 27.3% ↓

광주와 전남지역 5월 중 무역수지가 불황형 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중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무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한 34억3100만달러, 수입은 22억달러로 전년 대비 27.3% 감소했다. 이에 무역수지는 12억31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발생한 무역수지 흑자다.

연간 기준으로는 수입이 26.7% 감소한 반면, 수출은 11.5% 감소에 그쳐 무역수지는 68억9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월 중 광주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12억6600만 달러, 수입은 7.0% 증가한 4억8400만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억8200만 달러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한 21억6400만 달러, 수입은 3.3% 감소한 17억16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48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한전은 지난 20일 한전 본사에서 광주지체장애인 남구복지회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이동차량 5대를 전달했다. <한전제공>

한전, 거동 불편 소외이웃에 ‘사랑의 車’ 조달청, 지역 中企 수출·판로 지원

광주 남구복지회 등 4곳에 5대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일 한전 본사에서 광주 지역 사회복지단체인 광주 지체장애인 남구복지회 등 4개 사회복지시설에 ‘사랑의 이동차량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차량 기부는 2015년 12월 한전 본사의 나주이전 1주년을 맞아 시행한 ‘통큰 기부’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5월에 차량구입 완료 후 사랑의 열매 재단에서 선정된 4개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전은 이날 전달식에서 사랑의 열매 재단에서 선정된 광주지체장애인 남구복지회,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과 청소년 공동체 민들화에 승합차 1대, 광주공원 노인복지관에 경차 2대, 총 5대의 이동 봉사차량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한전은 기부차량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

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전의 ‘통큰 기부’는 지난 ‘2015년 본사 나주이전 1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한전의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광주와 전남 지회측에 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을 전달 지원했다.

한전은 이 외에도 지역의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습지원’, 해외사업 진출국에 지역대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 모국방문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관계자는 “한전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지역과 상생하는 따뜻한 에너지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소기업청 업무협약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과 광주지방조달청(청장 박용주)은 21일 광주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수출·판로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공공조달 규모는 2016년 구매총액은 17조2000억원으로 이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13조4000억원(77.6%)으로 전국평균 71.7%에 비해 우수한 실적이지만 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한 중소·중견기업 중 수출기업은 매우 적은 상태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중소기업간 경제제도 참여기업 중 수출실적 보유업체가 해외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사업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로 했다.

또 창업초기기업(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창업성장R&D 수행기업 등)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오는 10월 운영 예정인 ‘벤처나라’ 등록을 위한 업체 발굴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용주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정책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적인 공공조달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환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도 “지속적인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통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으로 조달시장에서 성장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현대·기아차, 중국내 생산·판매 일원화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각사의 중국 사업을 한 컨트롤 타워로 통합했다. 최근 실적 부진을 겪는 중국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기획실 산하의 북경현대기아차와 해외영업본부 산하의 중국사업부를 현대차그룹의 중국사업을 총괄하는 중국사업부들이 이제는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말했다.

기아차도 중국 생산법인인 동풍열린기아와 해외영업본부의 중국사업부를 현대차그룹 중국사업본부 소속으로 옮기는 등 중국 생산과 판매 조직 사령탑을 일원화했다. 중국사업본부는 지난해 10월 임명된 김태훈 현대차 중국 담당 사장이 맡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조직개편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양사의 효율적인 소통과 신속한 의사결정 등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북의 랜드마크호텔 특별분양!!

전주 한옥마을 라마다 @ncore 호텔

RAMADA JEONJU @ncore

10년 수익보장

실투자 6천만원 월수익 100만원

계약서 발행 2분만에 완판신화!!

1899-8735

NAVER 라마다 전주 검색

2017년 명품의 가치가 증명됩니다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광신프로그래스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 511-1141

시행 1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